



# 4면과 23면

이재훈(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대학교회 담임목사)

모 일간지 신문기사는 우리 사회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1년 사이에 130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성인 563만 명이 자살을 심하게 고려해보았다는 통계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겉돌어 자살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지표로 보여 주었는데 인구 10만 명당 한국은 31.2명이고 그동안 자살대국으로 알려졌던 일본은 19.7명으로, 미국은 10.5명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OECD에 가입한 나라 가운데 자살률이 안타깝게도 1등입니다. 이는 18세 이상 성인 6명 가운데 1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아슬아슬한 모양입니다. 이 때문에 1년에 15,000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2.6명이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비극이 매일같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의 70~80%가 우울증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른 통계 가운데 우리를 더욱 서글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80대 이상의 자살자가 20대보다 인구대비 5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노년에 우울증으로 힘든 삶을 보내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80대 정도의 연령층은 어림잡아 자식들이 적어도 둘 셋씩은 보통이었습니다. 많게는 네댓 명의 자식을 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들게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거나 취직을 시키면서 삶을 견뎌왔던 분들입니다. 한국 경제성장의 이면에 이와 같은 노인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0대의 심각한 우울증은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다는 것에 의한 아픔으로 생겨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어머니들이 자식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때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각한 상실감이 우울증이라는 정신적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우울증이 노인들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을 명시하여 심각한 죄악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동영상에 눈에 이르기입니다. 82세 된 아버지와 52세 된 아들의 대화를 소재로 한 동영상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를 보고 묻습니다. 아들이 답을 합니다. “까마귀입니다.” 잠시 후에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아들이 답을 합니다. “까마귀입니다.” 아버지가 많은 어머니가 네 번째 묻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인성이 높아집니다.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그러자 아들의 마음을 알아차린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 손 떼 묻은 작은 공책을 손에 쥐어 줍니다. 곁에 아들 양육일기라고 적혀있습니다. 아들이 돌을 지내고 까마귀를 보고 묻는 것을 신기해하며 까마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23번째 묻습니다. 아버지의 양육일기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묻는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계속해서 까마귀라고 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웠던 꽃들이 떨어진 자리에 꽃보다 더 아름다운 연류의 잎을 떨어놓았듯이 우리 모두의 삶은 주름이 깊이 팬 부모의 가슴에서 피어난 꽃들입니다. 겨우 4번을 통명스에 담긴 한 옹졸함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부모공경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살롱!



이재훈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대학교회 담임목사, 총화신학대학원에서 M-06와 풀리신학 대학원에서 D-1PhD, 학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대학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